



기초과학 중심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민동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 TF 팀장

새 정부가 새로운 개념으로 추진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총책을 맡은 민동필 팀장을 만났다. <편집자>

대담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장 duckhwan@sogang.ac.kr

일시 | 2008년 1월 15일

Q.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팀장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은하도시포럼으로 시작하여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 노력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동안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 나라 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되었습니다. 과학이 국부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고, 무엇보다 과학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제 휴일도 없이 달려온 인수위의 활동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자들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은 우리의 과학정책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학벨트TF에서는 과학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초청강연,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아이디어

나 제안을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의 ‘국민성공정책제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에 과학기술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과학기술계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계가 제안했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꽤 많고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과학기술계의 제안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직접 활동하시면서 느낀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과학계가 지금까지 내놓는 제안들이 정치계, 나아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효용성 있고 설득력 있게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계의 주장이 과학계 나름대로의 이익쟁기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계는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외국 과학자 한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은 인터뷰를 할 때 과학자로서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가로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르게 그런 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면을 얘기하고, 두 얘기 모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국민

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엔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제까지 제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메시지가 그만큼 정체되고 다듬어져 있었느냐에 대해 과학계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체해서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언론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Q.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창조적 실용주의'인데요. 민 팀장님이 이해하시기에 '창조적 실용주의'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성입니다. 어떤 굴레와 범위,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하자는 것이죠. 길이 없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휘몰아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 제안을 정제하여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과학계의 노력 필요”

Q. 인수위 안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제안들을 정제하고 검증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긴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런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새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몰려오는 폭풍을 뚫기 위해서 위로 솟아오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생각을 더 깊게 해서 근본에서부터 창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게 과학의 역할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과학자들에게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실용적이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효용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창조적 실용주의입니다. 창조적 실



용주의는 과학이 추구하는 방법론과 똑 같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잣대로 모든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Q. '과학비즈니스벨트' 팀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벨트TF에서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R&D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과학이 갈 수 있는 방향은 R&D산업이거든요. 그리고 R&D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 또는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에 바탕을 두지만 응용과학, 산업화 쪽에서 애로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은하도시에서 진화된 토털서비스 개념”

일류 과학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다지고 사업화 단계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기초과학으로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그것을 사업화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가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 나라 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선두권'에 진입시키며, 국부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과학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Q.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민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은하도시'가 발전한 것으로 당초에는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와 예술계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술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바뀌었죠.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우려는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간의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벨트라는 개념으로 조화를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 기회에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하도시포럼'이라는 모임이 기초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와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하도시에서 예술이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예술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벨트라는 개념으로 다가선 것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은하도시에서 진화된 개념으로 그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최적화하고, 토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 도구와 사업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Q. 왜 하필이면 가속기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속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닌데, 저희가 정보를 많이 안 드리는 바람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본에는 연구용 가속기가 155대가 있고 과학도시인 쓰쿠바에만 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가속기는 물질 내부를 보기도 하고 변형도 시킵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를 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구조를 변형시켜 요구하는 신물질을 만들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어떤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으로, 기업화로, 사업화로 연결될 때 가장 적합한 기종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속기가 나온 것입니다. 가속기를 우리 나라에 도입할 때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적합한 기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속기에 대해서는 이미 40여 명의 과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논의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국내외 의견 수렴과정이 계속될 것이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내용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만 필요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이

용하는 것만 했지만, 이제 국제사회에도 공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 두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가 정부에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과학기술계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덕연구단지, 광주, 대구, 과천 등이 다 새로운 것들인데, 또 벨트인가. 또 새로운 시설, 새로운 도시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낭비하고 투자하고 실제 일해야 할 시점에서는 에너지도 떨어지고 자원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나라가 세계과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위에 비해 우리의 기초과학의 질의 순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면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가속기도 남이 만들지 못한 가속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가속기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제비즈니스벨트가 또 하나의 출연연구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진면목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정책이 언론과시적인 효과를 위해 모든 내용을 빨리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갖게 만들고, 또 의견을 제대로 수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관심 가져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전 글로벌화된 호텔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듣기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서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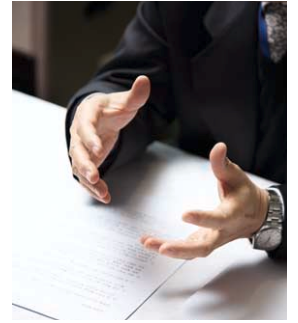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즈니스벨트나 도시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당연한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듯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할 수 있는 과정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진지한 토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발표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제까지의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기초부터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정부의 기초입니다. 아직 어느 것도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저희는 모든 것들을 발전적이고,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일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일등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미국 고급두뇌가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점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실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정부 투자와 기업 투자를 분리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정부 자체가 확실하게 목적의식을 가져서 잉여자원과 투자자원을 국가가 일류화로 나가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Q. 지난 10년 동안에 과학기술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규모도 크게 늘어났고, 혁신본부를 포함한 과기부 부총리 체제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실용', '창조',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경제만을 챙기는 것으로 보이는 데 언제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는지요.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살리기가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정부부처 통폐합은 시간적으로 당면한 현안이므로 인수위 논의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고, 특히 당선인이 기초과학 지원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도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 과학기술부의 폐지 또는 타 부처 통폐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가 인수위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역할이 과학기술계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과기부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과학기술계는 더 냉철하게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표현되고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이 발표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을 빼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당선인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인문사회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기부라는 걸로 드러나는 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현안 속에서 과학기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응용기술을 추구하는 부서에서 기초원천기술이라는 개념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수위에서 잘 행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Q.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대표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였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비정치성이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보다는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의 발전은 과학기술계가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계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 국익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나 목적이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Q. 과학기술계의 사회 참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진출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참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도들이 많이 배출되어, 행정부와 입법부뿐 아니라 연구 성과나 기술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2월 말이면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데, 인수위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래의 번영을 앞당길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과학계의 일원으로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Q. 바쁘신 중에 「과학과 기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될 훌륭한 기획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ST